

청주시 도심의 범죄 특성*

고 준 호**

Crime Patterns of CBD in Cheongju City

Jun-Ho Ko**

요약 : 본 연구는 도 시내, 특히 도심에서 범죄 분포가 갖는 의미를 지리학적으로 밝히려고 하였다. 청주시 도심지역의 범죄 발생의 특징은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많고 상대적으로 강역 범죄의 발생률은 낮다. 도심지역 내의 범죄 발생 장소는 연행별, 범죄 유형별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연행별로는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주변이 30대 이상, 성안길 주변이 10, 20대의 피의자가 많다. 범죄 유형별로는 풍물시장과 중앙공원 주변에서 폭력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중앙시장과 성안길 입구는 폭력과 절도 범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도심지역의 폭력 범죄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절도 범죄는 도심지역의 많은 유통인구와 물품 판매를 하는 기능체와 관련이 높다. 도심지역의 도로 버퍼링 분석 결과, 2차선 이상의 도로 영향권에서 발생한 범죄는 40%가 설명이 된다. 나머지 60%는 광목길과 소로길에서 발생하였다.

주요어 : 도심, 범죄 발생 장소, 범죄 기회, 버퍼링 분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tribution of crimes in Cheongju City. This study emphasized the characteristics of place and spatial pattern of crime in Central Business District(CBD). The crime core areas were delineated and explained through land-use based on fieldwork and GIS analysis. For this aim, the police crime data of Cheongju Dongbu(east), Seobu(west) for 1998 were collected in which 3,909 indictable or similar offenses were reported. In this study, included crimes are murder, rape, robbery, arson, theft, burglary, assault and vandalism. Because these crimes are related with site-specific crime. As a result, land-use patterns are often related to specific type of offenses. The crimes in Cheongju City were concentrated in the CBD. Most crimes were assaults and thefts. Crime areas can be classified by the age of the offender. Around Chungang and Pungmul Market in the CBD, the offender's ages were 30-50 dominantly. Assaults and thefts were concentrated in Songan-gilstreet, which is a place teen-agers and youngsters meet frequently. The result of the buffering analysis with roads, explained 40% of crime within a 30m buffer area(including both sides) of a principal road. The rest of the crimes mainly occurred in the vicinity of narrow streets and alleys.

Key Words : CBD, crime place, crime opportunity, buffering analysi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지리학에서의 범죄연구는 등한시되어 왔다. 그것은 첫째, 범죄문제의 해결에 공간적 측면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 지역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지리학이 범죄자의 장소(공간) 선택과 범죄의 공간적 보자이크를 설명하

는 이론과 모델을 제공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지리학은 이 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분석 수준에서도 다학문적인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리학에서의 범죄 연구는 단시간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범죄학이 2세기 동안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연구되었지만 지리학은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리학은 범죄연구에 있어 특별한 장점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 한 것임.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졸업(Master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이 있다. 그것은 지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장소 즉, "where(place)" 이기 때문이다. 즉, 범죄의 분포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장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장소 간의 관계와 이동,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을 설명하는 방법은 지리학이 갖는 장점이다. 이경희(1992)에 의하면 범죄 분포에 대한 지역적 분석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를 알게 해 주며, 그 지역의 사회지표로서의 범죄율의 공간적 일반화를 파악하게 함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범죄 지리학은 범죄학을 비롯한 여타의 학문 분야에서 소홀히 하였던 범죄 발생 장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범죄 행위가 사회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을 대표하는 현상으로 본다면(범죄 유형별로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패턴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사회·경제·정치적 요소들이 공간상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도시는 1950년대 이후 인적·물적 자원이 급속하게 집중된 공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처왔다. 그래서 도시의 토지이용이 더욱 집약적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런 도시의 토지 이용과 인공 환경은 개인이나 집단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켜 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도시내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특정 공간상에 집중을 한다. 특히, CBD라고 불리는 도심부에 범죄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 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도심지역의 범죄 공간과 장소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방법 및 자료

청주시 도심에서 발생한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범죄 발생 장소의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청주시 동부·서부 경찰서의 범죄사건부²⁾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 청주시 도심부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을 1 : 5,000 지반도에 표시하여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둘째, 지금까지 범죄 연구가 미시적으로 연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 발생의 핵심 지역을 야외조사를 통하여 범죄지도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 장소의 특성을 살펴낸다.

셋째, 도심 지역의 2차선 이상의 도로와 범죄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버퍼링 분석(buffering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넷째, 이상의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 발생 장소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연구 자료의 범위는 1988년 1월 1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범죄 행위 중에서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범죄), 절도 범죄(철도, 특수절도, 주거침입, 소매치기, 낄치기), 폭력 범죄(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손괴)만을 다루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 검찰통계상의 범죄분류에 상관없이 범죄 유형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특정한 장소와 관련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범죄만을 선택·연구한 것이다.

3) 연구지역 개관

청주시 일대는 충북에서 가장 넓은 내륙분지인 미호평야를 배후로 남동부 소백산지 서부 접경부에 위치하여 도시의 동쪽으로는 비교적 높은 산지인 上巖山(491m)과 牛岩山(352m)이 자리잡고 있고, 서쪽으로는 낮은 구릉지와 평야가 펼쳐져 있다. 도시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無心川은 북쪽에서 美湖川으로 합류한다. 미호천은 청주시의 북서부 지역과 인접하면서 남서쪽으로 흘러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충북 내륙의 최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청주시의 행정 체계는 무심천을 경계로 동쪽의 상당구와 서쪽의 흥덕구로 분할되며, 상당구는 동부경찰서, 흥덕구는 서부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다.

청주시는 경부·중부 고속도로, 충북선 및 인근에 경부선(조치원) 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수도권 및 타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한 교통과 입지적 강점 등으로 1970년대 서정주 일대에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청주시는 1988년을

기준으로 충북 인구의 37% 이상이 거주하는 약 55만명의 중급 규모의 도시로 충청북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및 교육·문화·양반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사회가 비교적 안정된 곳이다.

청주시의 도심(석교오거리에서 방아다리)은 행정구역상 성안동과 중앙동으로 행정기능과 상업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지만, 부도심⁸⁾은 도심 기능을 거의 분담하지 못하고 근린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근린형 부도심 또는 단순 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도심지역 내에서 가장 변화한 성안길은 조선시대 청주읍성의 주 남북연결로였다. 당시는 현재보다 15~2배 정도 작았으나 일제식민지하에서 개수되었다. 일제시대부터 발달이 시작된 성안길은 1910년대 초기에 本町通이라는 이름으로 청주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일제 때 지금의 성안길은 대부분 일본 상인들의 가게로 이루어져 있었고, 현 서문시장에서는 우리 나라 상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 일본인들의 상권지역이었던 곳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의 성안길로 이어지

게 된다.

2. 청주시 동별 범죄 발생의 특성

청주시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범죄 발생을 살펴 보면 도심 지역인 성안동과 중앙동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전체의 16.81%를 차지한다. 이는 도심부에 범죄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주시 범죄 발생의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업무, 상업시설물의 집중과 많은 유동인구 등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요소들이 제공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인구공동화현상이 나타나며, 남문로 1·2가, 북문로 1가에 있는 성안길은 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과 오락시설,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고, 10대와 20대의 젊은 남녀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이다. CBD로 표시되어 있는 중앙동과 성안동의 일부지역은 청주시에서 토지이용이 가장 집약적인 곳이다(그림 1).

단위 면적당 범죄 발생건수는 범죄가 얼마만큼 집중되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그림 2). 왜냐하면 범죄가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과 특정한 곳에서 밀집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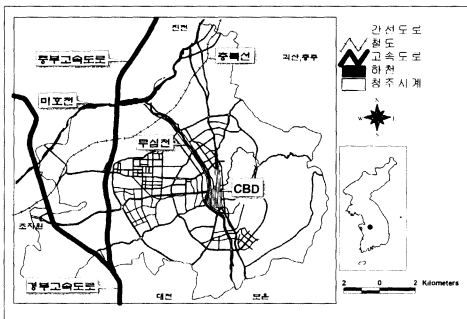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표 1. 1998년 청주시의 강력·폭력·절도 범죄의 발생 건수(행정동 기준)

행정동 (2000년 기준)	범죄동	발생건수	비교(%)
중앙동	영동·수동·북문로2, 3가	195	5.06
성안동	석교동·분화동·서운동·남주동·북문로1가·남문로1, 2가	452	11.74
우암동	좌동	185	4.80
내덕1동	내덕동	145	3.76
내덕2동		129	3.35
율양·사천동	율양동·사천동	180	4.67
탑·대성동	탑동·대성동	90	2.33
영운동	좌동	99	2.57
규천동	좌동	103	2.67
용담·명암·산성동	용담동·명암동·산성동	24	0.62
용암·운정·방서동	용암동·용정동·방서동·운정동·월오동·지북동	272	7.06
오근정동	주중동·주신동·경하동·경상동·경북동·오동동 외하동·외남동	21	0.54
사적1동	사적동	138	3.58
사적2동		110	2.85
사강동	좌동	127	3.30
모충동	좌동	161	4.18
윤천·신봉동	윤천동·신봉동	129	3.35
산·미·분·장동	산남동·미평동·분평동·장성동·장암동	85	2.20
수곡1동	수곡동	76	1.97
수곡2동		56	1.45
신희·개신·죽림동	신희동·개신동·죽림동	71	1.84
북대1동	북대동	195	5.06
북대2동		222	5.76
가경동	좌동	135	3.50
봉명1동	봉명동	130	3.37
봉명2동·송정동	봉명동·송정동	210	5.45
강서1동	강서동·수외동·휴암동·비하동·지동동·경봉동 서촌동·신촌동·현암동·동막동·석소동·석곡동	93	2.41
강서2동	향정동·외북동·신성동·평동·내곡동·선대동 상신동·문암동·송걸동·원평동·좌계동·남촌동	15	0.38
		3,848	100

문이다. 그래서 범죄지리학에서 일정 면적에서 범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범죄 핵심 지역이라고 정의하여 분석과 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높은 범죄 밀도는 그만큼 범죄가 일어날 기회 및 영향 요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좁은 공간 내에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주시도 도심지역에서 면적당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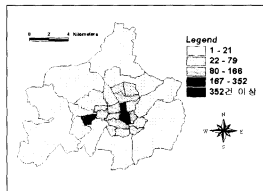


그림 2. 면적(km²)당 범죄 발생 건수

3. CBD 지역의 범죄 발생

범죄 발생은 사람의 이동, 자본의 흐름, 경제 성장과 쇠퇴 등의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도시내에서 사람들의 이동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고 공간적으로 편향되어 나타난다. 자본과 재화도 공간상의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나타나므로 그들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의 특성과 범죄 발생 장소의 공간적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청주시의 범죄 발생 장소도 공간상에 균동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를 들여다 보면 그 중에서도 범죄 발생이 밀집된 곳과 희박한 곳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주시 범죄 발생이 가장 밀집되게 나타나는 CBD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 장소의 특성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1) 토지 이용과 범죄

청주시의 CBD는 북문로 1·2가, 남문로 1·2가, 서문동, 문화동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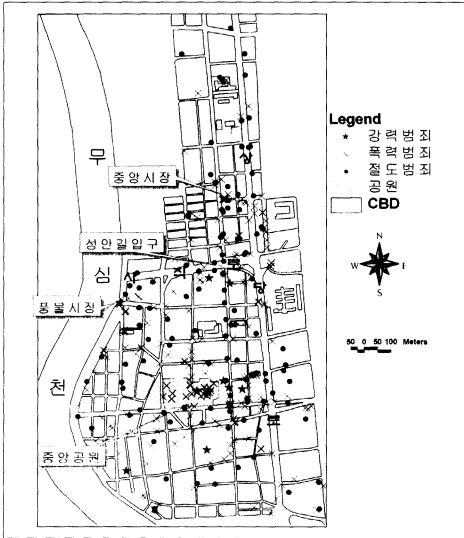


그림 3. CBD 내의 범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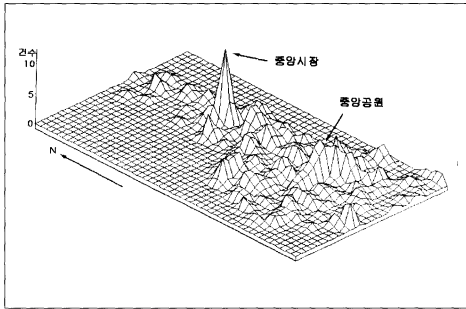


그림 4. CBD의 Grid Map

있다. 이 지역은 청주의 옛 읍성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일찍부터 시가지화되어 각종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입지했다. 특히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상당로와 사직로가 이 지역에 확장되면서 교통의 편리성으로 각종 업무기능과 상점판대, 사교오락 등 생활 중심 시설이 집중되고 고층건물이 밀집하는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다. 업무기능은 북문로 1·2가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청주시의 최고지가 지결도 이 부근이다.

업무·행정기관은 주변지역과 연결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시 중심부에 집결하게 된다. 특히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시청, 청원군청, 청주우체국 등이 위치하며 주로 성안길과 중앙로에는 각종 중앙은행의 지점이, 사직로에는 충북은행 본점(현 조흥은행)과 각종 보험업·증권·상업사무실 등과 행정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

물품판매기능은 전문적 상품을 취급하는 고급상점과 일반상점으로 나눌 수 있다. 백화점과 고급상점은 남문로 1가에서 북문로 1가에 이르는 성안길에 입지하며, 일반상점은 고급상점의 비율이

낮은 북문로 2가, 문해동, 서문동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음식점은 북문로 1·2가의 좁은 골목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업무관리가능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음식점은 고객기 많은 도심 상가 또는 업무지구의 이면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공장 등이 도심에 혼재하는 경우는 수리공업, 봉제공업, 인쇄업, 식료품공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공장은 시민생활과 관계가 깊을 뿐만 아니라 공해배출도 적어 시내 곳곳에 발달하고 있다. CBD의 내부적인 특화는 기능상호간의 관련성, 각 기능의 지대 지불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¹⁾

청주시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저변에도 유형별로 나타내고(그림 3), 여기에 50m×50m 크기의 격자망을 씌워 Grid Map을 작성하였다(그림 4). 장소별 범죄 발생건수는 중앙시장 내의 한국관 나이트클럽 부근이 최고이고 다음으로 중앙공원일대, 성안길 입구, 풍물시장 앞도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4곳의 범죄 발생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범죄 발생 장소의 분석

여기서는 CBD 내에서 범죄가 밀집된 4곳의 발생 장소를 분석하였다. 이 지역의 전반적인 범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파출소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도심지역은 중앙파출소와 북삼파출소가 관할을 하고 있다.

성안길 주변의 유흥업소들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으며, 폭력 신고는 새벽 1시 이후가 대부분이며 10대 후반 - 20대 초반이 술 먹고 사소한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신고 건수는 휴일 전날 5건, 평일 2건 정도이다. 터미널이 오픈 시간 이후 서문동, 남주동의 범죄 발생도 크게 줄었다. 낮에는 청소년들에 의한 약색사리류의 단순 절도가 많고 수동폭은 주거침입 범죄 많다.

순환을 자율 순찰제로 새벽 1시~6시 사이에 순찰을 돈다. 최근에는 한국관보다는 유희피아나이트클럽 부근의 범죄 발생이 많다. 용암동, 가경동이 차를 이용하는 어른들의 부대리면 성안길의 주 이용 대상은 주로 청주나 청원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다.

중앙파출소 인터뷰 내용

(2000년 7월 4일 16:30~17:30에 중앙파출소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순경과 면담함.)

한국관, 유희피아는 관리가 잘 되니까 생각외로 별로 범죄 발생 높지 않다. 이보다는 구멍가게에서 술먹고 노상에서 알콜로 인한 폭력이 종종 있다. 밤에 들어오는 신고 중 폭력 범죄는 주로 10대 후반 ~ 30대까지 고무 볼보탄다(중앙파출소와는 대비됨). 폭력 범죄의 80%가 순태문이며 기

타가 20%를 차지한다. 절도도 전문절도는 20% 정도이며, 나머지 80%는 단순절도이다. 절도범 중에는 중고생이 40~50%를 차지하는데 주 원인은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나서 버린다.

북삼(북문로3가) 파출소 인터뷰 내용

(2000년 7월 6일 14:00~14:40에 파출소 소장과 면담함.)

(1) 중앙시장 주변

중앙시장은 북문로 2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로 양면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성안길과 더불어 가장 붐비는 곳 중의 하나이다. 북문로 주변 유흥업소의 주 고객들은 30대 이상의 직장인 들이며, 10대와 20대들의 활동영역은 성안길 주변으로 나타나 CBD내 활동 영역층이 확연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중앙시장 건물 사이에 폭력이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이곳은 한국관 나이트클럽과 칫집, 술집, 볼링장 등이 있어 매우 혼잡한 곳이다(그림 5). 특히, 한국관은 중년을 위한 나이트클럽으로 폭력 범죄의 집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시장 주변에서 강력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중앙로 도로변과 시장에서 절도가 주로 나타나며, 흥국생방 앞 삼거리에 폭력 2건, 절도 1건, 날치기 1건이 나타나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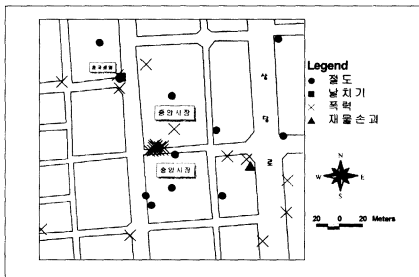


그림 5. 중앙시장 주변의 범죄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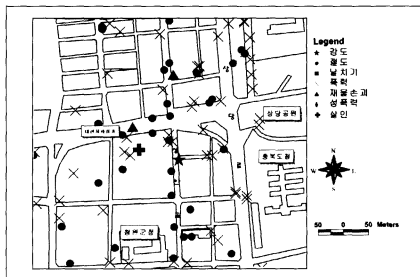


그림 6. 성안길 주변의 범죄 발생 장소

경관은 시장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시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많다. 도로변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수선한 느낌 준다. 그리고 주변에 술집이 많기 때문에, 길 옆에 주차된 차들은 밤 늦은 시간에 절도나 손괴를 당할 위험이 크다.

(2) 성안길 입구

성안길의 인식은 학생, 노인, 주부, 회사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성안길의 절대적 공간은 변함이 없지만, 주관적 공간 인식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는 성안길이 짧은 거리로 알려져 있고, 이곳의 공간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주부들은 쇼핑을 하는 데 최적의 공간으로 알고 있으며, 할아버지들은 중앙공원에서 모임을 갖거나 한나절 쉼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성안길보다는 그 옆의 중앙공원이 의미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절도는 사직로와 성안길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상점가 주변에서 주로 나타나고, 폭력은 상당공원 북쪽의 포장마차 골목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6). 이 지역은 청주시의 중심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집중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오는 곳이다. 백화점, 상점가, 극장,

분식점과 각종 축제 등은 특히, 청소년들을 성안길로 불러들이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안길 입구는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양 옆 상점들에서 쇼핑을 하기 위한 보행자들이 아주 많다. 따라서 상점내와 성안길은 절도 범죄의 발생이 용이한 곳이다. 성안길 입구의 대현 지하상가는 밝은 조명, 깨끗한 실내 환경과 출입구가 제한되어 있고 도주시 체포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절도나 폭력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재물손괴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3) 풍물시장 주변

서문동 풍물시장 앞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주로 폭력 범죄가 많다(그림 7). 여기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풍물시장내의 선술집들이 있어 (구)고속터미널의 유동인구와 20대 후반 이상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의 피의자를 분석한 결과도 무심천 제방에서 발생한 강도 외에는 주로 20대 후반의 연령이 많다. 따라서 이곳은 청소년들이 배제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절도 범죄는 사직로 쪽과 성안길 방향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옮겨간 이후 서문동(로얄관광호텔 주변) 상권이 쇠퇴하면서 이 일대의 범죄 발생도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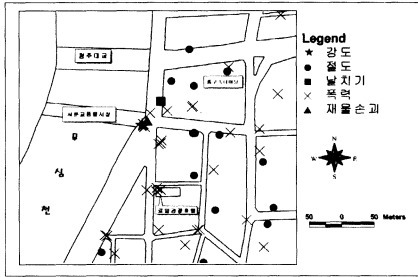


그림 7. 중물시장 앞 범죄 발생 장소

로얄관광호텔 앞 골목은 7개의 단란주점과 2개의 나이트클럽, 다수의 해장국 전문 식당이 밀집되어 있어 폭력 범죄가 밤 늦은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중앙공원 주변

중앙공원은 남문로 2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이 청주의 중앙이 된다하여 중앙공원이라 명하

였다. 조선시대에는 청주목(淸州牧) 관아(官衙)가 있었고, 해방 후에는 충청북도 도청이 있었다. 도청이 현재의 문화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도심 한 복판에 있는 중앙공원은 낮에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밤에는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오후 5~6시를 기준으로 공원의 이용 대상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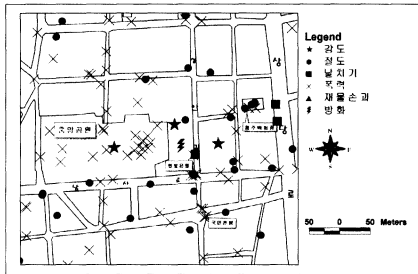


그림 8. 중앙공원 주변 범죄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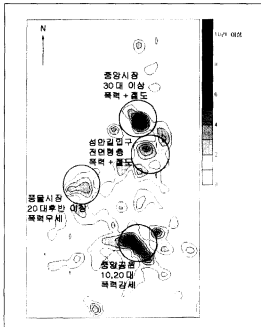


그림 9. CBD내 범죄 발생 장소의 유형화

중양공원 주변의 범죄 발생 특징은 첫째,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북서방향으로 폭력 범죄가 우세하고, 둘째, 인구 유동량이 많은 한빛은행과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폭력 범죄가 집중하고 있다. 셋째, 절도 범죄는 성안길, 남사로, 청주백화점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건물은 주로 3층으로 1층에는 물품을 파는 가게들이고, 2층과 3층은 주로 카페, 술집 등으로 이용된다.

중앙공원에서 발생한 25건의 범죄를 분석하여 보면, 밝혀진 피의자는 31명이며, 이중 여성은 8명으로 모두 20대이다. 폭력범의 연령층은 주로 10대 후반과 20대이다. 8월에 7건으로 가장 많고, 발생 시간은 오후에 일어난 4건을 제외하고는 밤과 새벽이다. 범죄 유형은 강도 2건, 상해 2건, 나머지가 모두 폭력이다.

도심지역 내의 공원은 유흥업 밀집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폭력 범죄의 온상이자 할 수 있다. 특히 중앙공원은 유흥가로 둘러싸여 있으며, 공원을 둘러싼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이거나 2차선 도로이므로 술을 마신 후 공원으로의 접근이 쉬워 폭력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상과 같이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장소

의 특징을 연령과 범죄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그림 9).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주변은 연령층이 20대 후반 이상의 연령층이며, 중앙공원 주변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연령층으로 구분된다. 성안길 입구는 점이적 성격의 지역으로 전연령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범죄 핵심 지역인 CBD지역의 범죄 발생 장소가 범죄 유형, 토지 이용, 주변 환경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범죄를 발생케 하는 주변 인공환경 요소들이 연령층별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CBD지역은 유흥업소의 영향으로 폭력 범죄가 장소별로 집중되어 나타나며, 절도 범죄는 도로변의 상점가를 따라서 발생하고 있다.

3) 도로 버퍼링 분석

CBD의 도로 패턴은 남북방향의 상당로와 동서방향의 사직로가 청주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가장 빠르게 해 주는 큰 길이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보조 간선도로(2차선 이상의 도로)들이 격자상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런 도로들은 대중 교통 수단과 승용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고, 외부 인구의 유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골목길보다는 큰 도로가 도주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죄 발생에 도로의 영향권을 설정하여 버퍼링을 실시해 보았다. 도로에서의 buffer area 계산은 2차선 도로의 경우 도로폭 3m, 인도 3m, 노면 상가 9m를 포함해서 15m(양쪽 30m), 같은 방식으로 4차선도로는 18m(36m), 6차선 도로는 21m(42m)를 주었다. Arc/Info와 ArcView 프로그램에서 계산한 결과 341건의 범죄 중에서 6차선 도로에서 38건, 4차선 14건, 2차선 84건, 총 136건으로, 전체 범죄의 40%가 도로 영향권내에 해당된다.

골목길과 소로길 등을 제외한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40%가 발생한 것은 CBD내 도로변의 상가와 술집, 많은 유흥동인구,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는 2차선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CBD 지역의 2차선 도로면에 술집들이 많아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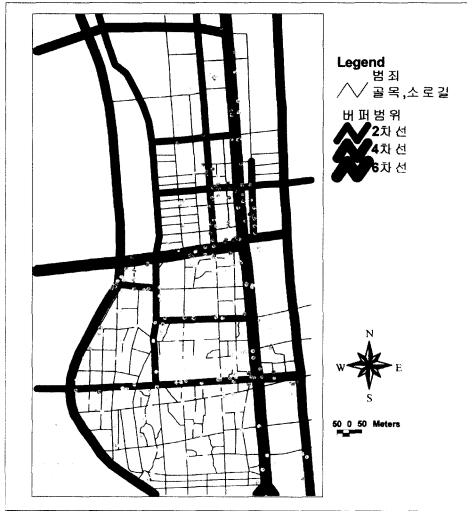


그림 10. CBD내 도로 버퍼링

을 먹은 후 길가에 나와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2차선 도로가 전체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점이 밀집한 곳의 혼잡한 사람들 틈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맞은 편의 인도로 도주하기에 알맞은 노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범죄는 특정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본 연구는 1998년 청주시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 장소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청주

시 도심지역의 범죄 발생 장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지역은 청주시의 범죄가 집중되는 곳이고, 특히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많고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의 발생률은 낮다.

둘째, 도심지역 내의 범죄 발생 장소는 연령별, 범죄 유형별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주변은 30대 이상, 성안길 주변은 10, 20대의 괴의자가 많다. 범죄 유형별로는 풍물시장과 중앙공원 주변에서 폭력 범죄가 많이 나타나며, 중앙시장과 성안길 입구는 폭력과 절도 범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셋째, 도심지역의 폭력 범죄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절도 범죄는 도심지역의 많은 유통인구와 물품 판매를 하는 기능체와 관련이 높다.

넷째, 도심지역의 도로 버퍼링 분석 결과, 2차선 이상의 도로 영향권에서 발생한 범죄는 40%가 설명이 된다. 나머지 60%는 골목길과 소로길에서 발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한계는 범죄사건 부 자체가 100% 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피의자의 50% 정도만이 밝혀져 나머지 피의자 특성은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와 범죄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註

- 1) Buck, A. J., Deutsch, Hakim, S., Spiegel, U., and Weinblatt, J., 1991. A von Thünen Model of Crime, Casinos and Property Values in New Jersey. *Urban Studies* 28, 685.
- 2) 경찰과 검찰 등에서 공식적으로 범죄를 집계하여 발생하는 범죄통계 책자는 많은 범죄를 법적으로 한정하여 축소시키므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범죄 발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주시 동부·서부 경찰서의 범죄사건부를 이용했다. 범죄사건부에 기록된 범죄는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기타에 의해 접수된 범죄만을 다루고 있어서 그것 전부를 100% 범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범죄라는 용어는 범죄 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범죄사건부에 기록된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범죄사건부에는 죄명,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의 일시 및 장소, 피해정도, 복대동 공단 5거리를 들고 있다.
- 3) 이경기, 1994. "청주시 부도심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여기서 청주시의 부도심을 내덕 6거리, 사창 4거리, 봉명 4거리, 복대동 공단 5거리를 들고 있다.
- 4)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리 : 지방편

(II)』, pp.288-291

- 5) 홍국성명암 폭력은 21시에 30대와 40대 남자가 술 먹고 상호폭력한 경우이며, 절도는 새벽 1시에 벌어진 차량절도로 차량 및 차내의 수표와 지갑이 도난된 경우이다.

文獻

- 구민자, 1982. "도시화와 범죄에 대한 지리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녹우회보, 24, 1-15.
- 박강철, 1995. 주택지에서 범죄 발생공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복준, 1988.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지역적 분포 유형."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미애, 1986. "우리나라 범죄의 지리학적 고찰-환경범죄학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경희, 1990. "서울시 범죄 발생의 분포와 지역적 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2. "서울의 지역별 범죄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 1996. "수원시의 중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진석, 1985. "대전시 범죄 발생의 시계열분석과 패턴에 관한 연구." 공주사대는문집, 23, 263-274.
- 최진석, 1994. "공주시 청소년범죄 발생의 시계열적 분석과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32, 1-12.
- Brantingham, P. L., and Brantingham, P. J. (Eds.), 1981, *Environmental Criminology*. London: Sage.
- Brantingham, P. L., and Brantingham, P. J., 1984, *Patterns in Crime*. New York: Macmillan Pub.
- Buck, A. J., Deutsch, J., Hakim, S., Spiegel, U., and Weinblatt, J., 1991. A von Thünen model of crime, casinos and property values in New

- Jersey, *Urban Studies* 28, 673-686.
- Davidson, R. N., 1981, *Crime and Environment*, London: Croom Helm Ltd.
- Hagan, J. and Peterson, R. D. (Eds.), 1995, *Crime and Inequality*,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Herbert, D. T. and Hyde, S. W., 1985, Environmental criminology: testing some area hypothes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10, 259-274.
- Herbert, D. T., 1977, Crime, delinquency and the urban environ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 208-239.
- Herbert, D. T., 1982, *The Geography of Urban Crime*, London: Longman.
- Morris, T. M., 1958, *The Criminal Area: A Study in Social Ec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an.

(2001년 4월 9일 접수)